

서울주보

제2555호
2025년 4월 27일(다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토마스의 의심

작가 미상
1190-1200, 템페라와 금박,
11.9×17cm
게티 미술관, 미국 로스엔젤레스



입당송 | 1베드 2,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5,12-16

화답송 | 시편 118(117),2-4.22-24.25-27ㄱㄴ(◎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2독서 | 묵시 1,9-11ㄴ.12-13.17-19

복음환호송 |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 요한 20,19-31

영성체송 |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계신 동네



권혁준 바오로 신부 | 하계동성당 주임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오늘, 그분의 자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원무궁토록 살아’(묵시 1,18)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잠가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아하 체험’(부활 체험, 곧 깨달음)을 하게 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행하셨던 말씀과 기적, 수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사랑’으로 성령을 받아(요한 20,22 참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은 180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며 ‘많은 표징과 이적’(사도 5,12)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변화, ‘아하 체험’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

은 아침·저녁기도 시간을 보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우리도 제자들이 했던 ‘아하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정의 평화는 함께 기도하고 대화할 때 가능합니다. 가정이 함께 모일 시간이 없어지는 현시대에 가정이 함께 모여 아침·저녁기도를 하면서 가정 공동체를 먼저 성화시킵시다. 가정이 성화 되면 이웃과 관계 안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가 점점 퍼져나가면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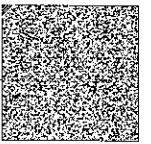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함께 앉아 기도하고 대화하며 지냅니다. 부활의 신비(아하 체험)는 기도의 은총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기도를 하면서 가정부터 성화시켜 봅시다. 그러한 가정이 많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동네가 아닐까요? 그곳에는 사랑과 평화, 나눔과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의심의 뭇을 벗고

영국 북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경본 부속집의 삽화입니다. 토마스는 왼손으로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오른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도 토마스입니다. 중세 그림은 재료를 아끼고 움직임과 이야기 전개를 표현하기 위해 때로 한 장면 안에 동일 인물을 두세 번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엎드린 토마스는 겹옷을 벗고 주님 발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의심의 상처는 주님의 부활과 용서로 아물며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두려워하지 마라



장윤선 소화 데레사 | 목4동성당 연령회

저는 연령회원입니다. 성인이 되어 처음 장례미사에 참석했을 때 겪은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대낮인데도 제게는 그 순간이 칙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 죽음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듯, 그저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믿는 부활 신앙이 진짜로 실재하는지, 혹시 그것이 헛된 믿음은 아닌지 하는 생각 속에서 그저 막막하고 두려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문은 자연스레 잊혀지는 것 같았으나, 작년 한 망자의 입관 예절 중 다시 두려움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관 앞에 다가가 유가족에게 촛불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때와 달리 알 수 없는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온갖 미신이 떠오르며 엄습해 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미사 중에 그날의 입관 예절 장면이 떠오르며 다시 무서움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 내면 깊숙이 숨어 있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의 임종을 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열네 살이었던 저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기억은 제 안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게 죽음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었고, 부활은 당연히 모르는 것이었으며, 아버지의 죽음은 그저 아버지를 볼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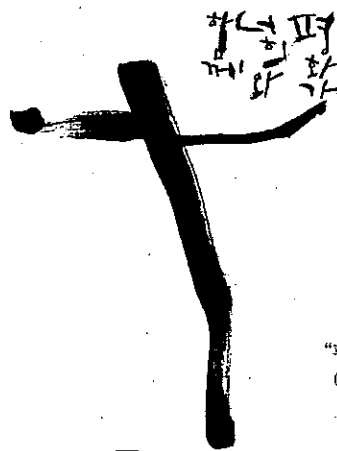
이런 저를 주님께서는 연령회 봉사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셨고, 그 안에 숨겨진 죄책감까지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저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있지 말라.'

고 하시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내면을 짓누르던 어둠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치유해 주시는 걸까?'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서는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주님이 큰일을 하였다." (요엘 2,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를 어떤 목적에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저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아버지를 위해 연령회 기도 모임에 나가려고 했고, 이 또한 제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가 죽음을 직시하도록 초대하신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도를 바칠수록 '당연한 하루는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날이 다가오며 재촉하기에 주님께 찬양 노래 부르나이다."

한컷 묵상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강신성 요한세례자 | 작가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심터(서울A지T) 소장

비정규직으로 올 12월까지 아지트에서 함께 일하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왜 아지트를 일자리로 지망했는지 물어보니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응답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신앙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네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 그러자 그 친구는 고민 없이 곧바로 “예,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면담은 한 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사목하면서 본당에서든 교구 대학교사목부에서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대답을 그 어떤 청년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 사제들도 그런 청년이 있다고 말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면담을 계속하면서 그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를 도와줄 목적으로 채용된 그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정학과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연히 교내 사람들을 통해 아지트를 알게 되었는데, 본인이 서울대에서 아동가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유도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였으며, 주님을 체험하면서 더욱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고, 사실 처음부터 자신이 이 학과를 고른 것 역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사가 된 이후 교수가 되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했구요. 그

런데 이 친구는 “저는 국내든,穆斯林 지역이든 사람들의 가정을 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Muslim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불화가 심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학력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 제가 공부해서 받게 될 소위 서울대학교 박사라는 타이틀이 제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힘들어요. 제가 자꾸 교만한 마음을 먹도록, 때론 저에게 더 쉬운 길을 가도록 유혹할까 봐 불편하고 겁나요. 제가 Muslim 가정의 성화로 마음 정한 것도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은 결과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된 부르심이라 이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여 따라가고 싶은데 세속적인 타이틀이 주님께 가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신선하고도 거룩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활 시기를 지내는 우리는 오늘 제1독서에서 “백성은 그들(사도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사도 5,13-14)라는 말씀을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존경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복신앙



전인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기복신앙’은 종종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신앙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복 신앙이 우리 삶에 해롭기만 한 것일까요? 인간이 신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의 모습이며,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기복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도 복은 하느님의 약속으로 표현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창세 12,2) 야곱도 야벳강에서 하느님과 씨름하며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창세 32,27)라고 말하며 주님께 간절히 복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마태 7,9,11)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청하면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무게 중심을 지나치게 기복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다고 자신을 탓하거나 하느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행복만을 바라게 되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복음의 본질을 외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을 생각해 봅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3,9) 여기서의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이들이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천상의 유산을 상속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미사 안에서 주님께 복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돌아보면, 기복적인 것에만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완덕에 이르는 길을 알려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삶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지복(至福, beatitudine, 완전한 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누리는 축복은 그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크고 깊으며, 영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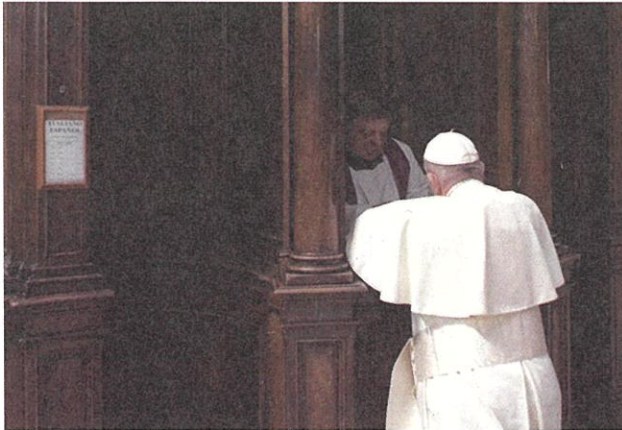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상욱 가브리엘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 고해성사를 볼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요? 예식이 따로 있나요?



바티칸 성 베드로대성전 고해소에서 사제 앞에 무릎 꿇고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2014.3.28.) | 사진 출처: vatican news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시어,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사제들이 성품성사의 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61항 참조)

현재 교회가 사용하는 <고해성사 예식>은 1973년에 반포되었고 한국어 본문은 2019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서의 지침 11항은 “고해성사에서 고해자가 직접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38항은 “각 지역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 예식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할 때 십자 성호를 그으며 성호경(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을 외우고, (16항) 지역의 관습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고백기도(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를 바치고, (18항) 사

제가 고해자에게 지은 죄에 대해 아파하도록 권고하면 통회기도(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를 드릴 수 있습니다. (19항) 이에 더해 <가톨릭 기도서>는 “고해한 지 000(기간) 됩니다.”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1931년 조선 지역 공의회 결의로 1934년에 간행된 교리서 <천주교요리문답>에는 <고명규식>이라는 제목으로 고해성사 예식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하소서.”와 “나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천주와 (...) 신부께 고합니다.”가 이곳에 있는데, 이는 1973년 개정 이전의 <로마 예식서>와 그에 기초한 다른 언어권의 예식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고명규식>에서는 더 길고 내용도 많은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 나 성찰치 못한 죄와 알아내지 못한 죄와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나를 벌하고 사하소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찰치(엑사미나레) 못한 죄’와 ‘알아내지(테테제레) 못한 죄’가 어떻게 다른 죄인지도 지금의 한국어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라는 구절도 눈에 띄는데, 이는 비록 죄가 개인적 행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함으로써 죄의 구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유비적 의미로서의 사회적 죄를 초래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68-1869항 참조)

신뢰, 여정의 밑바탕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1902~1994)은 그의 대표 이론인 '심리사회적 8단계 발달 모델'을 통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평생 성장(발달)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전 생애를 통해 사랑의 선물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일련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통합해야 하는 심리적 과제들이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성격 발달에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이론도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에릭슨의 이론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단계(0~1.5세)의 주요 과제는 '신뢰 대 불신'입니다. 요약하면, 친밀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양육될 때 영아는 이 세상이 좋은 곳이고 자신이 긍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지만, 방임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양육될 때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신뢰감 형성이 무조건 좋고, 불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때론 불신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초 신뢰'가 형성될 때 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분법적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죠.

이 신뢰감 형성이 이후 모든 발달의 초석이 되는데, 이는 신앙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믿는다.'라는 인간적 행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미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느끼기 때문에, 때론 그 안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더라도, 세상을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나의 약함과 죄스러움을 경험하고 아파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쉽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기초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이 기본이라면요? 그래서 감사와 희망보다 불안과 절망감이 계속된다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초 신뢰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친밀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 곧 나의 모습이 어떠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체험 안에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신뢰하면서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의 선물을 계속 발견해 갈 것입니다.

이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우리입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지혜 11,24)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4월 27일)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6년 5월 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 1986년 4월 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목국 ·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수정 ·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차인현(알로이시오)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차인현(알로이시오) 신부님께서 지난 4월 12일(토)에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940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66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아현동성당, 성신고등학교 교사, 웅암동성당, 교구 종교음악 담당 및 교도소 사목(현,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중림동(현, 중림동 약현)성당, 가톨릭음악원(현,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원장으로 사목하시다가 2002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2025년 4월 15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교구청 알림

중고등 가톨릭학생회 모집

매일 두 번째 주(토) 해화동 모임
문의: 02)742-4151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박시준 개인전: 1전시실
이콘연구소 제18회 회원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4월 25일(금)~5월 4일(주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5월 8일(목) 오후 2시~3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김대용 신부(대만 파견)

나눔의목상회 피정

대상: 사회복지사목에 관심있는 신자(선착순 40명)
내용: 스테파노의 삶과 영성(성인의 삶에서 성찰하는 이웃사랑 실천&나눔)
때, 곳: 5월 31일(토)~6월 1일(주일), 명상의집(우이동)
회비: 15만원(개인 7만원, 본회 지원 8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알림참여)
문의: 02)727-224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소영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5월 9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2025/5월)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 문의: 02)727-2047

4월 7일부터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접수

우드버닝 미니 트레이닝(월매)	4월 30일(수) 14시~17시 · 19시~21시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 성경	5월 15일~6월 1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5월 4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5월 5일(월) 13시30분~16시30분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6월 30일~7월 11일(11박 12일) / 지도: 전영준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테레사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CCM 생활성가 코드 반주법

때, 곳: 5월 12일~6월 30일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2시간, 최양업홀(중림동) / 강사: 김상균
등록기간: 4월 21일(월)~5월 2일(금)까지
문의: 02)393-2213~5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5월 12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이재혁 토마스아퀴나스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녹음봉사자 14기 모집 및 교육 안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 봉사자 모집
때: 6월 2일(월) · 11일(수) · 18일(수) · 25일(수) 10시~12시
대상: 표준어를 사용하는 40~52세 여성
곳: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문의: 02)2290-3138
접수방법: 굿뉴스 · 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WYD 유스페스티벌

내용: 전야행사, 성소주일 미사, 다양한 콘서트와 전시회, 거리 버스 행사 등
때: 5월 10일(토) 정오부터~11일(주일) 18시까지
곳: 대신학교, 동성중 · 고, 대학로 거리
문의: 02)2230-2031 WYD조직위 기획사목국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5월 청년 환경모임

고통 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5월 10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2호(명동)
문의(신청):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2025 예언서 5월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5월 2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내용: 유배 전 예언서 특강 /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민족화해위원회

1) 1463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2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서울교구(북녘지역) 안락 본당
문의: 02)727-2420 / 5월 6일(화)은 대체공휴일로 인해 화해미사가 없습니다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바이올린(김수연), 뮤지컬(이슬), 심리강좌(윤계연)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3) 김기화 신부의 영성강좌

주제: 성모 마리아는 누구이신가
때: 4월 3일, 4월 24일, 5월 1일, 5월 15일 19시~21시
곳: 영성센터 B204호(명동) / 문의: 010-4100-8807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신청: 4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 문의: 02)2269-0413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5월 3일(토)	3-2코스 일치의 길 (노고산성지~삼성산성지)
5월 6일(화)	3-1코스 일치의 길 (당고개성지~절두산 순교성지)
5월 10일(토)	2코스 생명의 길 (가화동성당~중림동약현성당)
5월 24일(토)	1코스 말씀의 길 (명동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5월 28일(수)	저녁뱃길(창경궁 코스) 명동성당, 김범우의 집 터, 한국천주교회 창립터, 좌포도청터, 창경궁 야간투어(오후 9시 해산)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ICPE 청년 몸신학 피정(시그널 심화)

때, 곳: 5월 10일·17일·24일(토)·25일(주일), ICPE 합정센터
문의(접수): 010-5320-0419 / 카카오톡친: ICPE

5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5월 22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11월 20일(목)~23일(주일) 3박4일
곳: 제주교구 성지(추자도 1일 일정 포함)
문의: 010-3080-9104 / 항공 예약 사전 접수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마진우 신부(대구교구 초전성당 주임)
때, 곳: 5월 21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주제: 성모님의 사랑, 별빛 성체 찬미의 밤(야외)
때: 5월 3일(토) 14시~17시 / 02/6253-3373, 010-8360-3700
곳: 여의도 한강공원(전철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 주제: 성모님은 성부의 딸, 성자의 모친, 성령의 궁전이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월 둘째주(토) 5월 10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외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

때, 곳: 6월 14일~17일(부산 11곳·마산 6곳)·6월 21일~23일(춘천 15곳·성내동성당)·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8월 28일~9월 3일(백두산·브뤼기에르 주교 죽음의 길), 9월 20일~23일(제주도·추자도·차귀도 / 미사)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1일 피정·성모신심미사 및 렉시오 디버나

곳: 양주 올리베타노 수도원(주최)
회비: 30만원 / 문의: 010-5230-2986

1일 피정(성모신심미사)	5월 3일(토) 10시30분~16시
렉시오 디버나	5월 28일 15시~6월 1일 13시

지리산 피아골·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6월 20일~21일, 7월 18일~19일
한국의 수도원 순례	10월 14일~17일
홍성남 신부와 아키타	9월 8일~12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5월 2일~4일, 6월 13일~15일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5월 19일(월)~28일(수)
품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수시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37차	5월 16일(금)~24일(토)	문의: 061/373-3001, 010-6216-5346
제138차	6월 13일(금)~21일(토)	
제139차	7월 11일(금)~19일(토)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피정동반자: 이재욱 신부(예수회)
때: 6월 12일(목) 17시~15일(주일) 16시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회비: 30만원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의정부교구 성령해신봉사회)

강사: 손희송 주교, 박효철 신부(청주교구)
미사: 손희송 교구장 주교 외 교구사제단
때, 곳: 5월 10일(토) 9시~17시30분, 남양주체육문화센터(남양주 다산지급로 91) / 회비: 5천원(티켓 구입)
문의: 010-9697-9004, 010-9297-8821

제주 면영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5월 20일~22일·6월 15일~17일(추자도 포함)·7월 31일~8월 3일(우도섬 포함)·9월 20일~22일·9월 26일~28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5월 26일~29일·6월 1일~4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 17일~20일(추자도)·5월 21일~23일(성모의 밤 포함)·5월 24일~26일·6월 2일~4일·6월 6일~8일·6월 12일~14일·6월 21일~23일(추)·7월 1일~4일(추)·7월 12일~14일(우도섬 포함)·7월 18일~20일·7월 22일~24일(차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산청 프란치스코 교육화관 피정

문의(접수): 055/973-3788

수도원 스테이	5월 23일~25일, 6월 13일~15일, 9월 19일~21일, 10월 17일~19일, 11월 14일~16일
침묵 관상 피정	5월 11일~15일, 6월 15일~19일, 9월 14일~18일, 10월 2일~16일, 11월 9일~13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5월 2일 10시~15시30분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5월 9일~11일(2박3일)
토요성모신심 기도회 미사	5월 17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6월 27일~29일(2박3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가정선교회 5월 피정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3층·7층 강당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도 미사 5월 3일(토) / 홍성남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5월 7일(수) / 김현우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5월 17일(토) / 하성용 신부
찬양 피정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가정회복을 위한 5월 25일(주일) 10시
치유 대피정 안토니 데카나스 신부

서울대교구 성령해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2025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곳: 지혜의 샘(부천시 경인로 61-1 / 전철 1호선 중동역 5분거리) / 문의: 010-3248-9705
1) 성모님께 33일 봉헌 3차 감사 피정: 5월 5일(월)
강사: 정윤희 신부, 한영임 회장
2) 성모님께 33일 4차 봉헌: 5월 7일~6월 8일
오전·묵주기도 20단, 오후·봉헌 기도(강의·기도·과견미사)

2025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때, 곳: 5월 24일(토)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혜화동) / 문의: 02/727-2489, 010-3136-7869
주제: "희망에 너희 마음을 열이라"(메시지 604번)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전진 신부(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수도회, 우이동 명상의 집 원장)
주최: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교육

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묵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그레고리오성가 지휘 특강 / 문의: 010-3308-9849

때, 곳: 5월 10일 14시, 시스미나음악원(신촌)

카톡·스마트폰·키오스크 교육(한국여성생활연구원)

디지털문해교육 / 문의: 02/727-2471(선착순 접수)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예수회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 문의: 02/3276-7799
때, 곳: 5월 22일(목)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 모집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 대상: 초3~고1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례지교회 해외학교법인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5월 27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30분(6주)
곳: 한국CLC강의실·온라인 Zoom
5월 22일까지 접수 / 문의: 02/2135-9398 한국CLC

스마트폰 선용 지도사 양성 과정

내용: AI시대의 강사 역할 등 / 대상: 스마트폰 강사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때: 5월 14일부터 매주(목) 19시~22시(10주) / 회비: 10만원
곳: 가톨릭회관 505호 / 문의: 010-3262-6823 천주교 스마트침묵문화운동본부(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소속)

유럽에 가야하는 EU 해외탐방

내용: 서유럽 여행 속 국가별 역사 및 문화이해를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활동
때: 7월 20일(주일)~28일(월) 총 9일간
참가대상: 11세~19세 청소년 30명 / 회비: 1인 585만원
접수: boramyc.or.kr 접속 후 '프로그램 안내' 게시글 확인 및 구글폼 제출 / 문의: 02/834-7233, 4 서울대교구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보라매청소년센터

'청년 기도학교' 모집(전교가르멜수녀회)

기도 학교	대면반 5월 20일(화), Zoom반 5월 22일(목) 19시30분~22시(총10강) / 문의: 010-7523-0956
청년OFF 기도모임	매월 셋째주(토) 5월 17일 15시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 단원 모집
때, 곳: 매주(월) 19시30분, 성음악아카데미(종림동)
지휘: 성공용 / 문의: 010-9042-8811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 9일(월) / 문의: 010-9836-8998

서울대교구 우리소리합창단(국악성가) 단원 모집
연습: 매주(월) 19시~21시, 전철 7호선 강남구청역
강사: 김선미 명창, 김윤아 소프라노 / 문의: 010-3909-1203

미사

성공률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5월 2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5월 15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5월 3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평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 02)3142-4434
때, 곳: 5월 2일(금) 11시10분, 절두산순교성지

4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4월 30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5월 3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4월 28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우요한 신부, 박신언 문시놀 공동집전
강론: 김한석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심의집(공동생활가정) 입소 어른신 모집
대상: 일상 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른신
곳: 파주시 하우고개길 425(운정역 근처)
시설운영: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031)945-5036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렐자비하수녀회)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및 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료 지원)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뜻한이 기도모임	매일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전진상영성센터 강좌 / 문의: 02)726-0700
곳: 전진상영성센터(명동) / www.jiscen.or.kr

자기치유 심인물 명상·심인물 진동·공명하며 진정한 나를 만나기	5월 12일~6월 30일 매주(월) 14시30분~16시(8주)
연극을 통해 나를 만나다·일반인들을 위한 연극의 이해와 활용법	5월 12일~6월 2일 매주(월) 14시~16시(4주)

입소어르신 모집

섭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할 입소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 대상: 거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문의: 02)803-3055, 010-2442-3055 섭리의 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직원모집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주방 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계약직) 모집

분야: 편집디자인(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5월 16일(금)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o@cbck.kr) 문의

개봉동성당 사무장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교리신학원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 주요업무: 주 2~3회 가정방문 및 방문 교리를 할 수 있는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우편(우 08332,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8길 11) 및 방문 접수 / 문의: 02)2615-8811

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근면성실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문의: 02)873-2333
5월 21일(수)까지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및 이메일(uid@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해당자 개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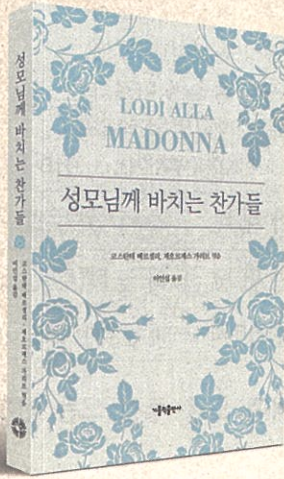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전문 편집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월 첫째주(주일)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혜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사랑의 씨앗 수녀회	수시 문의	카라의 뜰(전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예수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수도원(서울)	010-7485-1964
예수회	5월 17일(토) 15시	관구본부(마포구)	010-2876-1540(vocation.sj@gmail.com)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구제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코스탄테 베르셀리 외 지음 | 2만4천원

천 년의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성모님을 향한 인간의 찬미 성모님께 바치는 찬가들

“거룩하신 성모님, 낙담한 이들을 도와주시며,
약한 이들을 격려해 주소서.”

《성모님께 바치는 찬가들》 중에서

성모 신심



철학자, 믿음의 여인을 목상하다

베른하르트 벨테 지음 | 1만6천원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철학자의 10가지 시선

묵주 기도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의 9일 기도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3천5백원

성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9일 기도를
체계적으로 바칠 수 있는 안내서

에세이



파티마

루치아 도스 산토스 지음 | 1만6천원

성모 발현의 목격자 루치아 수녀가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

소설



마리아의 비밀

산티아고 마르틴 지음 | 1만8천원

문학적 상상력으로 성모님의
지상 순례 여정에 동참하다

묵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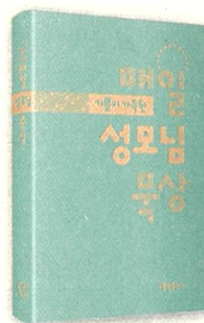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 성모 마리아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8천8백원

한 달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책

묵상집



기쁨이 가득한 매일 성모님 묵상

찰스 G. 페렌바흐 지음 | 1만6천원

언제 어디서나 성모님을 묵상하고
기도를 바칠 수 있는 핸드북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

구입문의
02) 6365-1888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통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성모의 밤

일시 : 5월 3일(토) 오후 8시 / 대성전

준비물 : 목주, 초(성당 마당에서 판매)

* 꽃을 봉헌하실 개인 또는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3일(토) 오후 6시 토요일저녁주일미사는 없습니다.

◎ 희년 맞이 연회동성당 바자회

희년을 맞이하여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의 삶에 따뜻한 손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시 : 5월 18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성당 마당 및 교육관

바자회 물품 대상 : 먹거리, 깨끗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등

물품 기증 장소 : 주일 및 평일(사무실)

쿠폰 판매 장소 : 주일(성당마당) / 평일(사무실)

후원 단체 : ① 이주여성그룹홈 ② 한사랑공동체

③ 바오로교실(장애인 보호작업장·주간보호시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3월~4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유준연	대환드레아	1-1	배주희	요안나	3-1
고재우	미카엘	6-2	신희연	캐서린	6-2
최수오	라우렌시오	6-5	주소연	세실리아	6-5
고혁빈	루카	6-5	정상운	안토니오	7-2
서미영	리나	7-5	배상록	바르톨레오	8-2
류진희	마탈다	9-3	홍은혜	에스테르	9-5
정지성	이시도르	10-3	배경호	가브리엘	10-5
전영민	시몬	10-6			

◎ 전입교우환영식 : 4월 27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성모신심미사 : 5월 3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5월 4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미사 : 5월 6일(화) 오전 06시

◎ 부활달걀 판매에 도움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판매 수익금.....3,716,850원

◎ 오라떼 음악회

일시 : 5월 31일(토) 오후 4시 30분 / 대성전

◎ 5월 1일(목)은 근로자의 날, 6일(화)은 법정공휴일로 사무실 휴무입니다.

5월 1일(목) / 6일(화)은 06시 미사만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4. 2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1	633 (31.5%)	589 (29.3%)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강금자 엘리사벳 상가.....삼십만원

故 원성군 요셉 상가.....이십만원

◎ 감사헌금 (4월 14일~20일)

이지원.....오만원 김재균.....오만원
 익명.....오만원 익명.....일십만원
 김건우.....일십만원 익명.....일십만원
 원정순.....오만원 이정금.....오만원
 광선모.....오천원 홍순규.....일십만원
 박희정.....일십만원 한인경.....이십만원
 이지만.....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 부활 대축일)

교무금.....7,555,000원

성금요일 예루살렘성지 특별헌금.....2,016,000원

파스카성야헌금.....2,739,010원

주일헌금.....5,492,000원

미안마긴급구호2차헌금.....3,170,000원

입당	130	봉헌	218,212,210	성체	499,197,169	파견	134
----	-----	----	-------------	----	-------------	----	-----



주님은 좋은 분 찬송 하 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 하 시 다